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입학상담 : 062-520-2555 동강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3/15℃ 목포 4/14℃ 여수 6/15℃
단기 4343년 (음력 9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18호 1판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이것이 광주 전기차 광주서 만든 승용 전기자동차 'iPlug(아이플러그)'가 2일 첫 선을 보였다. 광주지역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주)탑알앤디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4인승 친환경 저속 전기자동차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규하 (주)탑알앤디 대표이사, 쉬웨이 궈 중국 스테디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5000대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탑알앤디 제공〉

구청 보건소는 뭐 하고…

광주 4개구청 무료 독감 예방접종 병원 위탁 예산 낭비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 중 4곳이 '드림 스타트 사업'에 포함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 일괄 위탁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건소들이 아동들에 대한 접종을 병·의원으로 미루면서 1인당 접종비가 1만원 이상 높아져 각 지자체별로 수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지역 5개 지자체에 따르면 동구·서구·북구·광산구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병·의원에서 '드림 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 남구는 오는 10일까지 접종이 실시된다. 접종 대상자는 ▲동구 367명(실제 접종자 250명) ▲서구 281명(〃 172명) ▲남구 310명(〃 200명) ▲북구 300명(〃 200명) ▲광산구 182명(전원 접종) 등 모두 1440명(〃 1004명)이다.

▲'드림 스타트'=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된 건강·인지·사회정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100개 시·군·구에서 드림 스타트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접종비는 ▲동구 1만1000원(예산 275만원) ▲서구 1만6000원~2만2500원(〃 281만원) ▲남구 1만7000원~2만1000원(〃 323만원) ▲북구 2만7000원(〃 540만원) ▲광산구 1만6000원(〃 231만원) 등이다. 구별로 1인당 접종비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만6000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접종비 격차가 큰 것은 동구를 제외한 지자체 4곳이 인근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한 데서 비롯됐다. 예방접종이 구청 산하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 병원별로 접종비를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은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일반인들의 독감 예방접종 일정과 겹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드림 스타트' 아동들에 대한 병·의원 위탁 접종은 각 지자체별로 수백만원의 복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드림 스타트' 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모 보건소 측에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료 접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일괄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강기정 발언' 일파만파

'남상태 로비 몸통설'…여당서 국회윤리위 제소

민주, 과민반응 개탄 "의혹 계속 밝혀나가겠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 주장과 관련 여당이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권이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민주당도 여권의 '과민 반응'을 개탄하며 의혹을 계속 밝혀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일 오전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징계안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해 대통령 영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등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강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저열한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면책특권은 강 의원처럼 시정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로 국가원수를 모독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면책특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황식 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헌법상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며 제도적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청와대는 사실일 경우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될 일이며, 야당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영부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의혹에 대한 자료는 계속 밝혀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이날 "면책특권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온당치 않은 대응이라고 생각된다"고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 영어 배워요

새롭다, 즐겁다, 뉴질랜드 어학연수

뉴질랜드 정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정통 영어 어학연수에 글로벌시대의 꿈나무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뉴질랜드교육문화원(NZLES : NewZealand Life Education Service, www.nzles.com)과 공동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어학연수는 기존 '해외과외형' 연수가 아닌, 새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 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 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어느 연수프로그램 보다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주관 : NZLES·AK WORLDLINE
- 연수학교 : Stanmore Bay School, Gulf Harbour School
- 신청마감 : 12월 10일
- 문의 : (062) 220-0641

光州日報社

영광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2019년까지 9조2000억원 투입

영광 해역에 오는 2019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모두 9조2000억원을 투입해 25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 이로써 전남도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추진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2일 영광원자력발전소 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과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중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해상풍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은 지난달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로, 조속하게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2013년까지 영광과 부안 경계 해상에 100㎿(5㎿×20기)규모의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증단지란 기술 개발 뒤 운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단지를 가리킨다.

정부는 이어 2단계로 2016년까지 900㎿(5㎿×180기) 규모의 시범단지로 확대하고 3단계인 2019년까지 1500㎿(5㎿×300기) 규모의 발전기를 추가로 세워 모두 2500㎿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고창 변전소와 새만금 변전소를 거쳐 전국으로 공급된다.

영광~부안 해역의 경우 태안·군산·신안·진도 등 서남해안 5개 우선 개발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바람등급 ▲수심 ▲변전소 이격거리 등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지로 선정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本社 人事

▲金熹淳 광고마케팅국 부국장 〈11월 3일자〉

고구려대학 KOGURYEO COLLEGE 입학문의: (061) 330-7323~5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하나투어
예약문의 062-224-0022
광주 무안 직항기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전일빌딩 1층 투어뱅크
구. 도청
금남로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한국능률협회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파워 1위
브랜드스톡선정 (2005~2010) 6년연속 브랜드스타 1위
한국표준협회선정 (2007~2008) 2년연속 KS-SQI 서비스품질지수 1위

내 아이 글로벌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
영어 캠프 상품
요금 1,650,000원~
■ 1차 : 2011년 1/4일 ~ 1/15일
■ 2차 : 1/18일 ~ 1/29일
■ 캠프 장소 : 서해 유스호스텔
■ 참가 대상 : 초등 3학년 ~ 중등 1학년
■ 캠프 특전
1. 11월 20일까지 조기 예약 10만원 할인
2. 형제/자매 예약 5만원 할인
3. 4인 단체 예약 5만원 할인
4. 200시간 이상의 영어 몰입 환경 제공
5. 비전 리더십 특강 제공

규슈 온천 여행! 특별한 추억, 감동의 선물
하나투어 창립 17주년 하나투어 단독진행
김수희 孝콘서트
일본 부관훼리 4박 5일 김수희 〈효〉콘서트
■ 출발일 : 11월 27일, 11월 28일 (단2회)
■ 출발지 : 광주역
요금 509,000원~
• 포함사항 : 왕복훼리비용, 유류할증료, 부두세, 선내식 2회, 현지지상비, 해외여행자보험, 광주/부산국내수송
• 불포함 사항 : 선내식 2회, 기사&가이드봉사료(20,000원-성인,아동 동일)

무안공항 마카오 전세기 취항 기념
홍콩 | 마카오 | 2박 4일
요금 899,000원~
■ 출발요일 : 목(4일), 일(5) 주 2회
■ 상품특전
- 무안공항출발
- 스탠리마켓, 리펄스베이, 빅토리아피크-홍콩대표 관광지
- 마카오 시내관광, 성바울 성당 등 주요 관광지 관광
- 얌차식, 광동식 등 현지식 제공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 광고표시 등에 관한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필수경비 포함 : 여행자보험(해외1억원/국내5천만원), 관광진흥기금, 공항이용료 및 유류할증료, 안내원비용 ■선택경비 : 개인적 선택에 따른 현지선택관광은 별도비용임(일정표에 명시), 개별적인 팁 및 비자비용 별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주) 하나투어 ■일반여행업 등록 377호(서울)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5억 보증보험 가입(보험기간 : 매년 2월 1일~다음해 1월 31일) ■최소 출발인원 : 10명 ■숙소 : 2급 호텔 이상 ■교통편 : 항공/버스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유류할증료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0날짜는 요동변동있음)